

고은 불교대하소설

너지며 작은 돌맹이들이 바위를 따라 떨어지는 소리인가.
 "작은 것으로 태어나고 싶도다."
 우녀는 이런 난데없는 말 한 마디를 입 안에 구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재바같은 재자가 없다고 한 그 자신이 재바가 되고 싶은 원망(願望)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할았다.
 재바란 누구인가. 바로 3세기 남인도의 대승불교를 들여올린 용수보살의 재자가 아닌가.
 스승 용수가 발우(鉢盂)를 물 속에 넣었다. 그러자 재바는 그 물 속에 바늘 하나를 던져 넣음으로써, 스승에게 귀의하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바로 이 바늘 재자를 스승은 받아들였던 것이 낯날 바늘 던지기(投針)로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인즉 발우나 물병에 물을 채우는 것은 인도 여러 고장에서 상서로운 징조 또는 축복을 뜻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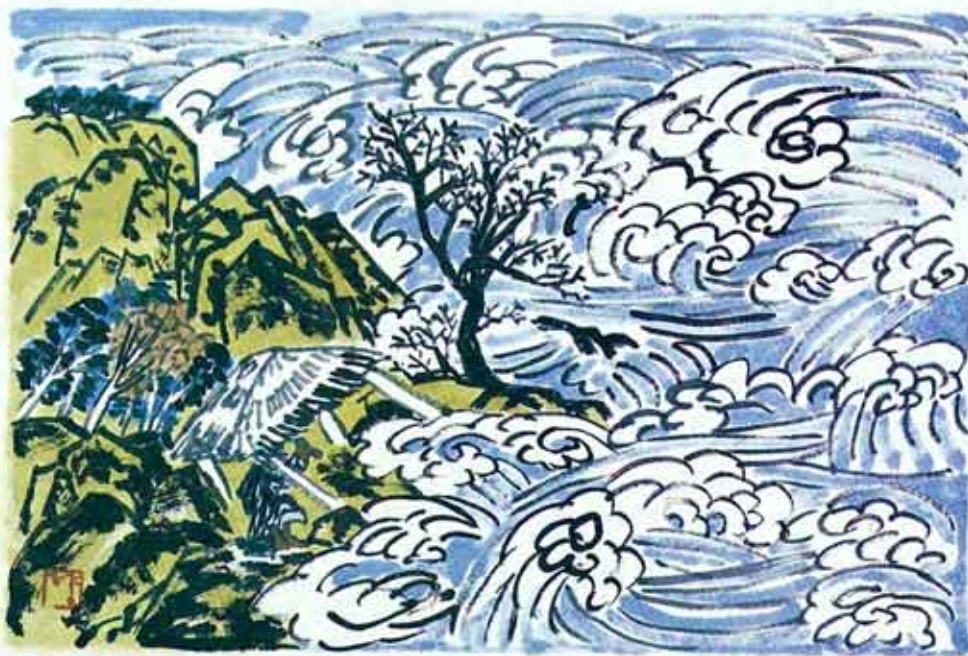
것은 거기에 용수에 대한 재바의 비유가 들어있음인가, 아닌가.
 마침내 우녀는 그 소리를 한번 더 크게 들을 수 있었다.
 씩어
 그것은 난바다로부터 섬 기슭에 이르는 바다에 이르기까지 차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주 사나운 너울이 풀려오는 소리
 있었다. 이번에는 바로 그 너울의 한 덩어리가 산비탈만하게 몰려와서 무욕도 한 폭을 덮쳐버릴 때의 그 엄청난 소리에 우녀는 동망 파멸해버리고 말았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아니, 그는 그가 누워있는 요사의 선방 집채와 함께 그 너울에 휩쓸려 저만큼 섬

우녀가 어느 정도 그가 밀려온 곳에 대하여 짐작하게 되었을 때는 그의 어깨쪽과 다리 쪽이 옥신거리는 통증을 느끼면서였다. 어깨 쪽에 왼손을 대보니 미끈거렸다. 그것은 피가 낭자한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다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너울 속에서 집채가 무너지는 것과 함께 중상을 당한 뒤 이처에서 그 중

로 공(空)이 아닌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든, 윤회든 니르바나든 근원적으로는 하나, 곧 공(空)이다. 다만 그 길이 풀이고 그 목적이 다를 뿐이다. 두 개의 길이란 무지-어리석음-와 반야-지혜-이고 두 개의 목적지란 윤회와 니르바나이다. 모든 것들의 근원에 있는 그것은 스스로 존재하며,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며 마음과 언어를 초월해 있다. 거기에는 윤회라는 말도 니르바나라는 말도 성립되지 않는다.

서의 넋두리가 누구의 것이겠는가.
 실로 그는 다이상 니승(尼勝)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뜻밖의 바다가 크게 치솟아 너울과 해일을 이룬 나머지 그 바다의 혼돈 가운데서 한갓 일세일 뿐이었다.
 옛 사람이 말하였다. 발가벗은 가슴과 이요 맨발로 서 있는(露胸跣足) 사람이었던가.
 이제 그는 그 벗어날 수 없는 혼돈 속에서 차라리 싸움터의 어린 아이처럼 울음이 나 터뜨리는 것이 알맞았다. 아니 그런 아이를 잃은 어머니처럼 말할 수 밖에 없는 그 절망의 한탄이 가장 자연스러웠다.
 우녀는 이렇게 아무 것도 아니게 되어 지난 날 그가 예상할 어귀 벽란도 언저리에서 거칠기 짝이 없는 뱃사공들 기량이 밀려도 기어다니며 한 덩어리 밭을 얻어 먹던 계집아이 시절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런 계집아이에게 인당과 의연도 무욕도 수행의 인연도 다 허깨비가 아니던가.
 타고난 상태에 좀더 가까이 간 상태가 이제 우녀의 숙연한 수행 끝에 찾아온 것인가. 먼동이 났다. 그렇다고 해서 선불리 갈매기 따위를 허용하는 것도 아니었다. 아직도 너울의 힘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제 그 너울이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날은 파 선 것이다.

바다 혼돈



사나운 너울에 중상을 당한 우녀는 피가 낭자한 몸을 만지며 넋두리를 했다 "아름이야말로 생명의 구급약...헛된 손님 ...시간과 공간도 아픔...무아...공"

피할 수 없는 것이야. 다만 그 아픔이 아직 그 자신의 것이 아닌 오늘날 뿐이야...
 "하지만 아픔이란 헛된 손님이야. 그 아픔이 끝나면 언제 머물러 있었는지 모르게 자취가 없는 것이야... 마치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하는 내를 자체가 헛된 손님인 듯이..."
 "아픔 다음에는 내 몸... 내 몸 다음에는 내 카르마... 내 카르마 다음에는 무아

그동안 모든 것을 어둠에 전가(轉嫁)할 수 있는 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어둠만으로 세상을 책임질 수 없게 되었다. 먼동이 뜨자마자 바로 새벽기운은 아침을 재촉하고 있었다.
 하늘 가득히 차곡차곡 채워진 구름장의 층층으로 솟아오르는 해가 물고 나타날 리는 없다 하더라도 세상은 바이흐로 어둠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한 젊은 장수가 황급히 내달리던 앞에서 뛰어내려 채찍을 손에 쥔 채 "여기서부터 내 땅이다"라고 군림하는 것처럼.
 산란 바다에 예외적인 섬은 그 섬위의 유일한 사람 우녀가 그런 것처럼 가장 무능하였다. 이 장들줄 모르는 폭풍우를 어떻게 변화시킬 아무런 수단도 없었으므로.
 우녀의 아픔만이 좀처럼 약해지지 않은 채 몸서리쳐서 있었다.
 그런 우녀에게 어디서 너러바위 위에서 일어날 힘이 남아 있었던가. 그는 가까스로 일어났다. 그가 앉아서 아픔을 참아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너울처럼이 거기까지 밀쳐서 그 몸을 흠뻑 적셨다. 옷매무새가 몸에 늘어붙어 마치 알몸뚱이 같았다. 환을 때문에 다친 부위가 구멍이 뚫는 것처럼 쓰러졌다.

그림·조향숙

구경의 세계에 "작은 것으로 태어나고 싶다"

재바는 예수가이었다. 용수보살의 공(空)을 터득하여 백론(百論) 등의 책을 짓고 인도 중관파(中觀派)의 조상으로 섬겨지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과격한 이교도에 의해 암살당하기까지 가는데마다 그 지역의 가장 높은 학승과 사상가들을 만나 그의 속소는 그들의 신발로 마당이 채워졌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스승 용수보살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우녀가 지금 분명치 않은 소리를 울썩달썩하지 못하는 처지로 들고 있다가 작은 것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한

의 뒷쪽으로 밀려올려지며 편물을 억지로 삼켜야 하였다.
 억! 억!
 우녀 자신은 섬의 선착장 쪽으로 넘어가는 뒷쪽으로 밀려간 것도 알 수 없었다. 극도로 긴장된 상태의 의식이 여는 공포와는 다른 것이지만 그것은 어떤 화두도 사찰한 목조선의 그 둔탁한 정신과도 이어지는 것이었다.
 이 모든 갑작스러운 혼돈은 하늘의 어느 곳을 별부스리기 하나도 보일 까닭이 없는 어둠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 어둠 자체까지도 혼돈이었다.

섬 전체의 사정을 좀더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아픔과 함께 바다의 너울만이 아니라 거센 바닷바람에 굶은 빗방울들을 뿌리는 어둠 때문에 아픔에만 머무를 수도 없었다.
 "작은 것으로..."
 아마도 이같은 비상상태 속의 우녀에게는 그 입안에서 증언거리지는 작은 것에 의 지향이 그의 오랜 목조선과는 달리 간화선의 화두였는지 모른다. 작은 것은 더 작은 것으로 되면서 끝내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절차의 아쪽인가.
 더 작은 것으로 되는 구경(究竟)이 바

(無我)... 그 무아조차 텅비어 없음(空)의 높이일 것이야...
 "어찌 살아있는 목숨 뿐이라... 시간조차도 아프지 말라는 법이 없었지... 어제는 이미 어제가 아니고 지금도 이미 어제가 되고 마는 것이야, 하물며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이야 어떻게 이계의 나일 수 있으리... 과거의 마음 얻을 수 없음이고 현재의 그것 미래의 그것이 그럴 수 밖에 없음이겠지... 아 이런 시간과 함께 공간도 아픔으로 가득한 것이야... 그러기에 공간도 헛것이 아닐수 없겠지."
 이런 넋두리는 우녀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폭풍우의 너울이 덮치는 섬에



받음이었다. 우녀는 어둠 속에서 들려온 어떤 소리 때문에 잠을 잤다. 그 잠은 잠자리 날개라도 되는 것처럼 얇은 것이었다.
 무슨 소리일까. 문득 옛날 이야기 속에서 먼 길의 나그네를 맞아들어 잠자리까지 제공한 뒤 그 나그네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가는 소리인듯 소름이 끼칠만한 한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정숙한 반가(新家)의 주인이 긴 비단치마를 끌고 가는 소리인 듯 고혹하기도 하였다. 아주 맑은 소녀의 귀에는 저녁 하늘 속을 날아가는 두루미 날개소리가거나 그 두루미가 소나무 가지에 앉을 때 내는 날개소리도 들릴 법 하였다.
 그러나 그 소리는 좀더 큰 소리로 들려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우녀는 몸을 일으키지 않은 채 그대로 누워 있었다.
 "머릿장에는 풍! 소리가 몇번 들리더니 아제는 허공을 굽는 소리가 나는구나 하고 여겨지기도 하는 그의 몸은 방바닥에 붙어있는 것처럼 누워있는 그대로였다.
 "그가 몸을 움직이려 하였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나에게는 재바(提婆)같은 재자가 없다고!"라고 그는 아주 오랜만에 그 자신만으로 살아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가 자신의 몸을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실이 뜻밖에도 재자가 없다는 것으로 그 고혹의 무능을 드러낸 것인지 몰랐다.
 소리는 적어도 섬 기슭에서 얼마 떨어지지 있지 않은 곳에서 들려왔다. 파도소리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슨 소리란 말인가.
 "그 소리는 큰 스승이 무너지며 작은 재자들이 태어나는 소리인가. 큰 바위가 무

한
 받음이었다. 우녀는 어둠 속에서 들려온 어떤 소리 때문에 잠을 잤다. 그 잠은 잠자리 날개라도 되는 것처럼 얇은 것이었다.
 무슨 소리일까. 문득 옛날 이야기 속에서 먼 길의 나그네를 맞아들어 잠자리까지 제공한 뒤 그 나그네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가는 소리인듯 소름이 끼칠만한 한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정숙한 반가(新家)의 주인이 긴 비단치마를 끌고 가는 소리인 듯 고혹하기도 하였다. 아주 맑은 소녀의 귀에는 저녁 하늘 속을 날아가는 두루미 날개소리가거나 그 두루미가 소나무 가지에 앉을 때 내는 날개소리도 들릴 법 하였다.
 그러나 그 소리는 좀더 큰 소리로 들려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우녀는 몸을 일으키지 않은 채 그대로 누워 있었다.
 "머릿장에는 풍! 소리가 몇번 들리더니 아제는 허공을 굽는 소리가 나는구나 하고 여겨지기도 하는 그의 몸은 방바닥에 붙어있는 것처럼 누워있는 그대로였다.
 "그가 몸을 움직이려 하였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나에게는 재바(提婆)같은 재자가 없다고!"라고 그는 아주 오랜만에 그 자신만으로 살아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가 자신의 몸을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실이 뜻밖에도 재자가 없다는 것으로 그 고혹의 무능을 드러낸 것인지 몰랐다.
 소리는 적어도 섬 기슭에서 얼마 떨어지지 있지 않은 곳에서 들려왔다. 파도소리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슨 소리란 말인가.
 "그 소리는 큰 스승이 무너지며 작은 재자들이 태어나는 소리인가. 큰 바위가 무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비보미력을 추구합니다.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신선한 自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미!
 이제 세안·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 항염재료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감초, 속지황, 천근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에민, 신성배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농축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글

호서대학교 식물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 기술인 신성배로 추출된 천연 미용비누라고 생각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한 각종 유해 중금속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을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기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천연미용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최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신성배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회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항염재료를 첨가하여 만들어진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주)씨·티·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 내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

첨단의 생명공학기술과 전통의 동 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념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